

功 불교 법안 총괄적 검토 過 종단·의원간 소통 부족

어떤 법안 처리됐나?

17대 국회가 입법처리한 불교 관련 법안은 문화재 보호와 불사 규제완화, 10.27법안 피해자 명예회복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삼보장제(三寶莊制)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이다.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사찰이 불사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불가피한 불사에 대해서도 부과되던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짐도 덜었다.

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은 사찰이 나 비영리 복지시설의 신·증·개축 시 예외 없이 부과되던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10.27법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28년 만에 가능하게 된 '10.27법안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제정도 의미 깊다.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특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의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불교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대 국회가 불교계에 남긴 것

지난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가 2월 26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17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 끝나지만 4월 9일 총선으로 인해 더 이상 법안을 심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의 17대 국회는 불교계에 어떤 공과(功)를 남겼을까? 17대 국회에서 입법처리 된 불교 관련 법안은 어떤 것이 있고, 18대 국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의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불교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안 제·개정도 상당수 이뤄졌다. 2005년 12월에는 사찰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개정안이, 2007년 1월에는 도난문화재에 대한 민법의 선의취득 적용배제 조항이 신설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각각 가결됐다. 2004년 제정된 '고도(古都) 보존특별법'은 점(點) 단위의 문화재 정책을 면(面) 단위로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불교계 특례'라는 오해로 삭감 위기에 처했던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금을 원위치로 되돌린 점도 17대 국회의 큰 성과로 손꼽힌다.

17대 국회가 남긴 과제는?

17대 국회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졌던 불교 관련 법안 검토 및 상정이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불교정책기획단에서 불교계의 현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고, 그 결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 또한 조계종과 대동명정인수위원회 사이에 실 무렵의회가 구상돼 불교 현안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고, 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지도록 해 대정부 차구 마련에 전기를 이뤘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몰아치기식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쉬움으로 여수령 기자

남는다.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과 관련한 '문화재보호 기금법'과 해외소재 문화재의 조사·보존을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폐사지 정비 및 복원을 골자로 한 '폐사지 보존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전히 '불자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있다. 불자의 원들이 불교계와 국회의 가교인에도, 불교계가 요구를 읽어내고 이를 법안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일부 의원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불자 국회의원들을 인력 풀로 관리하고, 주요 입법 활동에 동참시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 17대 국회를 통해 대두된 문제는 종단의 대정부·대국회 대응 시스템 부재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전격적인 본회의 통과와 1주일만의 변안동의안 가결이라는 '해프닝'을 통해 조계종의 국회 입법과정 인지 및 대응 시스템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은 "앞으로 정부 인력 풀과 국회 시스템 보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템플스테이 체험하러 오세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여행박람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고 템플스테이 일거리에 나섰다. 2월 27일 참가자들이 인견(印絢)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17대 국회 불교 입법활동 누가 뛰었나?

“교계 여론 법안 반영 노력”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회장인 이해봉 의원은 17대 국회 임기 동안 '전통사찰법 개정'과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정각회 회장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 의원은 '사찰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10.27법안 특별법'에 대해서도 증자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정각회 회장으로서 불교 관련 부처와 국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임기내 교계정책 최다 지지”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

'10·27법안 특별법' 발의의 주인공이자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변안동의를 이끌어 낸 윤원호 의원(통합민주당)은 국회의원 불

자회 정각회 내에서도 알아주는 '불자의원'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해오며 불교계를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해왔다. 2005년 발간된 '사찰 출토 문화재 소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에서는 불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불자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자의원으로, 국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10.27법안 특별법 발의 노력”



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용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정치권에 있다 보니 신생활을 자주 하지 않는 못하지만 늘 마음을 비우고 국

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운지는 오래됐다.

알고 보니 한국외대 교수 재직시절, 교수불자협회 회장 멤버였고 여성불자회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27법안 진상규명특별법 발의에도 템플스테이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으로 불교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해 사회를 위해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국회-불교계 가교 역할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1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1 010-7504-4521 (김영희 변호사)
017-535-069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태선 변호사)

정각회는 어떤 모임?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은 누가 있을까?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회장 이해봉)는 국회와 불교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에는 전체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와 뿐 아니라 각 정당별로도 불자모임이 있다. 여당에는 '한나라당 불자회'가, 야당에는 통합민주당 '이타회'가 있다. 조동섭 기자

제17대 정각회 회원 명단

정각회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번갈아 회장직을 맡는다. 17대 국회에서는 2004년 10월 제17대 정각회 출범 당시 이용희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2006년 4월부터는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과 강장일 의원(민주당), 간사장은 이영호 의원(민주당), 간사는 정문현 의원(한나라당), 최재성 의원(민주당), 감사는 이은영 의원(민주당),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등 총 36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조동섭 기자

제17대 정각회 회원 명단

김광부(한·나라당, 경북북부), 강정원(민주당, 제주),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중구), 김병희(무소속, 부산진구), 김경주(민주당, 비례대표), 김재경(한·나라당, 경남진주), 김학순(한·나라당, 부산남구), 김태환(한·나라당, 경북구미), 김학순(한·나라당, 경남진주), 박승환(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승환(한·나라당, 부산중구), 안홍준(한·나라당, 경남마산), 임호성(한·나라당, 부산서구), 유기준(한·나라당, 부산서구), 유승민(한·나라당, 대구동구), 윤원호(민주당, 비례대표), 이재경(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진(한·나라당, 강원원주), 이광재(민주당, 태백영월), 이상배(한·나라당, 상주), 이영호(민주당, 강진원도), 이용희(민주당, 속초고성), 정봉주(민주당, 서울·원), 정중록(한·나라당, 경북경주), 정희수(한·나라당, 경북영천), 조성래(민주당, 비례대표), 주호영(한·나라당, 대구서구), 최병현(한·나라당, 서울서초), 최재성(민주당, 경기남양주), 홍문표(한·나라당, 충남홍성)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탄발화(德山拈鉢語)와 파자소암(破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얻을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저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활판대묘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능허(능허)가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원정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 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말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칭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운몽에 잠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잠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반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주주여! 천 년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들려 버렸구나!”

- 법문 중에서 -